

인쇄물 수출업체 초비상

환율급락 등 영향...4월말 현재 50% 감소

인쇄물 수출이 비상이다.

최근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감소함에 따라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쇄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인쇄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의 침체와 테러사태 등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하면서 인쇄물 수출은 물론 국내 상품의 수출전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에는 주력시장인 미국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서서히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재발생이 우려되는 테러와 함께 미미한 경기상승 등이 국내 인쇄물 수출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경기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여기에 달러대비 원화의 절상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 인쇄물 수출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가치의 상승은 적정 수출단가를 조절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단가 하락요구

가 거세게 이어져 대부분의 인쇄물 수출기업들은 상당 폭의 수출단가가 하락했는데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수출을 포기하거나 경쟁국가에 밀리는 양상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집계한 인쇄물 수출액은 총 481억2,338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6억7,633만9천원)에 비해 50.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물 수출 11개 품목 중 3개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표 참조>

특히 인쇄물 수출에 있어 효자종목이었던 설계도와 도안, 기타인쇄물, 캘린더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올 인쇄물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설계도와 도안은 총 9억2,231만6천원어치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인쇄물(70억1,792만7천원)은 85.6%가, 캘린더(46억3,023만3천원)는 17.7%가 각각 줄었다. 이밖에 감소세를

<표1> 인쇄물 수출

(단위 :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1-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5,668,678	5,920,803	7,500,814	6,388,721	25,479,016	6.60%
인쇄잡지 및 정기간행물	310,768	300,036	418,266	465,711	1,494,781	12.8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21,995	1,919	76,007	40,058	139,979	14951.50%
약보	0	0	0	0	0	
지도·해도·이와 유사한 차트	27,018	12,435	61,993	25,577	127,023	-69.70%
설계도와 도안	112,821	118,460	482,275	208,760	922,316	-88.30%
우표·수입인지·기타 유사물품	0	0	228,557	18,146	246,703	-63.40%
전사지	1,260,387	1,595,826	1,958,479	1,525,062	6,339,754	-0.50%
인쇄된 엽서·그림엽서·인쇄카드	727,368	334,039	352,262	311,987	1,725,656	-8.70%
캘린더	295,656	527,152	1,160,465	2,646,960	4,630,233	-17.70%
기타인쇄물	1,970,061	1,319,518	1,832,586	1,895,762	7,017,927	-85.60%
합계	10,394,752	10,130,188	14,071,704	13,526,744	48,123,388	-50.20%

나타낸 품목으로는 전사지(-0.5%), 인쇄된 엽서 등(-8.7%), 우표 등(-63.4%), 지도 등(-69.7%) 등이며 악보의 경우는 전혀 수출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쇄서적 등과 정기간행물, 아동용 그림책 등은 증가했다. 인쇄서적은 254억7,901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가 증가했고 정기간행물(14억9,478만1천원)도 12.8%가 늘어났다. 특히 매년 수출이 미미했던 아동용 그림책 등(1억3,997만9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93만원)보다 상당 폭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기대이하의 수출액을 달성한 인쇄업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고 달러대비 원화가 절상하다보니 채산성이 안 맞아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국가 신용도 하락과 수출 확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쇄물을 포함해 국내 상품의 수출 단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환율상승으로 수출단가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최근에는 원화가 절상함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불투명해 수출 단가의 적극적인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10개 수출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평균 1,305원으로 조사됐으며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도 전 업

종 평균 1,258원으로 조사돼 환율이 1,25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인데 인쇄업계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 단가를 낮추어 수출을 대폭 늘리는 전형적인 가격 의존형 수출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품질 향상, 고효율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환율변화에 관계없이 적정의 수출단가를 유지하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인쇄물 수출이 저조한 양상을 보인 반면 인쇄물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집계한 인쇄물 수입액은 총 1,036억7,013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가 증가했다. <표 참조>

정기간행물과 우표 등, 캘린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낸 품목으로는 인쇄된 엽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8%가 증가했고 설계도와 도안은 83.2%, 지도 등은 67.7%가 각각 늘어났다.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쇄서적 등과 기타인쇄물도 각각 7.6%, 19.5%가 상승해 인쇄물 수입액 증가를 부추겼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인쇄물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가 흑자기조에서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됐다. ↻

<김광륜 차장>

<표2> 인쇄물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1-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17,739,367	14,074,510	11,518,633	12,839,108	56,171,618	7.60%
인쇄잡지 및 정기간행물	2,257,614	2,170,686	2,426,481	2,335,198	9,189,979	-13.4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1,200,954	668,341	734,162	670,583	3,274,040	60.70%
악보	34,808	66,113	193,951	141,279	436,151	63.80%
지도·해도·이와 유사한 차트	186,431	123,635	233,511	310,577	854,154	67.70%
설계도와 도안	336,899	150,935	37,850	189,674	715,358	83.20%
우표·수입인지·기타 유사물품	70,691	269,442	39,173	114,810	494,116	-70.40%
전사지	608,128	705,676	1,060,384	1,116,245	3,490,433	43.40%
인쇄된 엽서·그림엽서·인쇄카드	30,395	112,962	148,003	113,055	404,415	110.80%
캘린더	48,112	4,801	8,770	6,342	68,025	-20.20%
기타인쇄물	2,100,403	7,846,667	8,310,409	10,314,367	28,571,846	19.50%
합계	24,613,802	26,193,768	24,711,327	28,151,238	103,670,135	9.90%